

# 석유화학 · LCD 중국수출 “유망”

KITA, 2010년 5대 키워드 선정 ... 자동차부품 · 전자재 · 환경설비도

2010년에도 석유화학 및 LCD(Liquid Crystal Display) 중국수출이 유망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해마다 수출의존도가 높아지는 중국시장을 겨냥하기 위해 2010년에는 중국의 내수촉진책과 도시화 흐름에 맞춘 수출이 유망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무역협회는 2010년 중국수출의 5대 키워드로 ▲중국 정부의 내수촉진책 ▲도시화에 따른 개발 열기 ▲서비스 산업 ▲한국 브랜드 ▲신 성장 녹색산업 등을 꼽았다.

중국의 내수촉진책을 이용할 수 있는 수출품목은 LCD, 자동차 부품, 석유화학제품 등이고 도시화에 적합한 품목은 전자재, 환경설비 등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서비스 시장 팽창으로 영화, 오락, 공연 분야의 진출이 유망하며 한국 브랜드를 살려 화장품, 분유와 같은 유가공 제품의 수출을 모색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제안했다.

또한 원자력, 신·재생 에너지, 에너지 절약 등 환경·에너지 업종의 신 성장산업의 수출도 전망이 밝은 것으로 전망됐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2/22>